

퇴진 광장을 열자!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2024년 9월 28일(토) 오후 3시 / 숭례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 대회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고미경 사무총장

○ 발언

- 대회사 :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상임고문,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상임대표 의장,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 투쟁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공연1 : 선동깃발무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 결의문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대표,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도흙 사회개혁특별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한국청년연대 김식 상임대표,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
- 공연2 : 합창 대표단&진보대학생넷 '민중의 노래'

○ 폐회 후 용산으로 행진

[붙임1] 대회사 - 2쪽

[붙임2] 투쟁사 - 4쪽

[붙임3] 결의문 - 5쪽

반민생 민생 파탄, 반민주 헌법유린, 반평화 전쟁위기, 친일역사쿠테타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정권 지지율이 20%로 폭락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다.

법 앞에 예외와 특혜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건희 등 윤석열 측근에만 가면 법 앞에 평등의 가치는 사라진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마약밀수 사건 수사외압, 용산 대통령실 건설 개입 등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의혹은 커져만 간다.

검찰, 경찰 공권력은 김건희 앞에 서면 힘을 잃는 반면, 비판적 언론, 정치세력, 노동자 농민 민중에게는 반국가세력 칼날을 들이대며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노조법 2.3조 개정, 방송 4법등 민생개혁입법을 21차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친일역사쿠테타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가치 동맹 운운하며 미국을 추종, 대북, 대중국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패권정책 선봉대가 되어 대한민국을 제국의 패권전쟁을 위한 다영역 군사작전기지요, 핵전쟁의 대리전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자유민주적 통일을 운운하며 동족을 멸절하겠다는 전쟁정책을 고집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지원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독도 공유설 등 영토주권 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친일파시스트세력 국책기관과 주요공직자 장악, 교과서 왜곡 등 윤석열 정권의 친일역사쿠테타는 한미일 동맹 구축을 위해 한일 과거사 등 현안을 일본 위주로 해결하는 일련의 사대매국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한 동맹에 우리의 역사와 영토, 정체성까지 내어주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퍼주고도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윤석열 정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가!! 전쟁조장, 사대매국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도, 평화도, 역사 정의도,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중국을 적대하며 대중 수출이 축소되면서 2분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인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해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쌀값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음에도 저관세 수입을 멈추지 않고, 턱없이 모자란 시장격리는 오히려 농민을 우롱한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반노동 극우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노동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점상 도시빈민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이용해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업자를 살리려고 부동산 가격 부양책을 쓰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게 폭증하고 있고, 가계 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서민들의 피땀으로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있다. 부자정책을 일관하며 노동자 농민 서민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친일역사쿠테타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퇴진의 전면에 나서자. 우리의 손으로 퇴진광장을 열어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낸 주역이었던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민주인사들은 다시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나설 것이다.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맞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붙임2] 투쟁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한국사회대전환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투쟁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투쟁!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매일 매일이 참담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광장과 거리에서 분노의 항쟁을 조직합시다.

노골적인 왜곡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이미 이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부도덕한 권력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서민의 고통은 왜면하면서 재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보마저 기업에 넘겨 배를 채워주는 정권은 끝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개악과 전쟁위기 조장으로 윤석열 정권은 모두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공격하고, 노동조합을 혐오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거짓이자 기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감옥으로 가야할 부정한 범법자입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기후악당이자 나라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사대매국 세력입니다. 노동권을 파괴하는 반노동,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반민주세력,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반민중,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반국가세력 윤석열 정권 이제 끝냅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국민투표에 나설 것입니다. 들녘과 거리에서, 대학과 공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거리를 채워갑시다. 11월, 12월로 이어지는 민중총궐기에 노동자 민중이 가장 선두에서 투쟁에 나섭시다. 우리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광장을 힘차게 열어 다시한번 항쟁을 만들어냅시다. 이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내쫓은 자리에는 민중의 권력을 세웁시다.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숨지을 것이 아니라, 주먹을 불끈쥐고 노동자 민중의 나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기위해 나서야 합니다. 포기하고 멈추면 웃는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탄압에 신음하고 고통속에 눈물흘리는 노동자 민중을 위해 우리가 싸웁시다. 강력한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이제 끝냅시다! 투쟁!

[붙임3] 결의문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반민생, 반민주, 반헌법, 반평화 친일역사쿠데타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민주주의 훼손, 헌법 유린!

공안탄압 자행하고 민주세력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부정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쌀값은 농민값! 윤석열 내리고 쌀값은 올리자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부자감세, 민생파탄!

고통을 노동자, 농민, 빈민에게 전가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성평등정책 후퇴, 여성인권 후퇴!

틈만 나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전쟁위기 조장!

미국 패권 추종하며 전쟁조장, 대북적대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친일역사쿠데타! 굴욕외교! 역사도, 영토도, 항일 정체성도 부정하며 미일한 군사동맹,

퍼주기 외교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0월 8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광범위하게 진행한다. 노동자는 현장에서, 농민들은 들녘에서, 빈민들은 노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진의 국민적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하나. 이러한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11월 9일, 11월 20일, 12월 7일로 이어지는 윤석열 정권퇴진총궐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하나. 박근혜 퇴진광장을 열어내었던 노동자 민중, 우리가 앞장서서 퇴진광장을 열어낼 것이다.

2024년 9월 28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 참가자 일동